

제 12-2강 이스탄불의 도시건축

터키

가) 터키 국가개요

정식명칭: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위치 : 아시아 대륙 서쪽

면적 : 77만 4815km²

인구 : 7059만 7000명(2003)

인구밀도 : 91.1명/km²(2003)

수도 : 앙카라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터키어

통화 : 터키 리라(YTL)

환율 : 138만 4000TL = 1\$(2003.9) / 현재 100만분의 1로 환율조정중

1인당 국민총생산 : 2,530\$(2003)

나) 터키의 지역구분

동쪽으로 이란·아르메니아·그루지야, 남쪽으로 이라크·시리아, 북서쪽으로 불가리아·그리스에 접하고, 북쪽으로 흑해, 남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에게해(海)에 면한다. 소아시아(아나톨리아) 반도 전부, 보스포루스해협·다르다넬스해협·마르마라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의 발칸반도, 동(東)트라키아 지방에 걸쳐 있다.

- 1) 흑해지역 : 북부 산악지대 , 터키 전체의 1/6
- 2) 마르마라지역: 마르마라해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음. 인구밀도 높고, 농업 생산량 많음
- 3) 에게지역: 에게해안. 터키 서부지역. 저지대. 농업 발달. 고인구밀도. 산림 많음.
대표적 도시: 이즈밀.
- 4) 지중해지역: 터키 남부지역. 북쪽으로 토로스 산맥(터키 최대 산맥).
대표적도시: 안탈리아
- 5)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 해발고도 600-1200m. 초원지대. 밀농사와 목축.
대표적 도시: 앙카라, 콘야
- 6)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 해발고도 1500-2000m, 저인구밀도, 목축. 아라랏산(5156m)
대표적 도시: 디야르바크르, 울파

다) 터키의 역사

- 1) 구석기시대(BC 60,000-BC 10,000)

카라인동굴: 이스탄불 근처, 네안 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에스, 석기

- 2) 신석기 시대(BC 8,000-BC 5,500)

하즈랄: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생활의 흔적(BC 7000년 경)

- * 카탈 휘위크(Catal Huyuk): BC 6,500년-BC 5,500년.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춘 도시
진흙으로 만든 벽돌, 목재 기둥과 서까래를 이용했다. 단층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은 방어용, 또는 작업공간
집들은 대부분 같은 형태로 창고, 부엌, 방으로구성

3) 청동기, 석기 시대(BC 5,500-BC 3,000)

하즈랄- 이층주거 나타남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린 도자기(주로 핑크빛의 노란색 바탕에 붉은 갈색으로 장식)

금속공업이 발달하기 시작,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발칸지역,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 증대

4) 청동기시대(BC 3,000-BC 1,200)

햇티문명(Hattians: BC 2,500-BC 2,000)

선사 시대의 문명으로 남아있는 아나톨리아의 토착민 문명

나중에 정착한 히타이트(Hittites)인들 통해서 알 수 있음

중기 청동기시대에 중부 아나톨리아의 부족국가 형태

고유 언어 사용, 히타이트인들과 융합

알라자 휘위크(Alaca Huyuk)-금과 은, 청동을 이용한 그릇, 무기, 장신구

황소문양과 우주를 뜻하는 원형 모양

앗시리아 상업문명(BC 2,000-BC 1,800)

아나톨리아의 앗시리아 상업식민지, 카룸(시장, 항구)와 와발툼(대상, 창고)

상업의 발달과 문자의 사용 활성화.(메소포타미아 설형문자)

클테페의 타브렛(문자판)

히타이트(BC 1,800-BC 700)

히타이트인들 북쪽에서 이동.

5) 여러민족의 이주(BC 1300-BC 334)

에게의 이주민들(BC 1,300-): 아이올리안인,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프리기아(BC 850-300): 유럽에서 프리기아인 이동. 히타이트 멸망.

아나톨리아 중심부 장악

리디아(BC 680-546)

- * 이어, BC 546년 페르시아 침입

6) 알렉산더 대왕과 헬레니즘시대(BC 334-30)

알렉산더대왕의 아시아정벌(BC 334)

알렉산더 사후의 분열(BC 323-280)

헬레니즘문화의 발달(BC 280-160)

7) 로마의 아나톨리아 진출(BC 133-AD395)

아나톨리아 전체를 '아시아'란 이름으로 하나의 주로 편성

로마의 통치하에서 소아시아 가장 번영

- * 330년 로마제국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김 / * 395년 동서로마의 분열

8) 비잔틴 제국(동 로마, AD395-1453)

라틴문화와 헬레니스틱 문화의 갈등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를 공인,

AD330년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지금의 이스탄불)으로 옮김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AD395년에 동서로마의 분열

서로마는 AD476년에 멸망

동로마의 공식 언어:라틴어가 아닌 희랍어로 바꿈

동서교회의 분열: AD726년의 성화 성물 파괴(이코노크라즘)이라한다.

* 셀주크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패배 (이슬람화)

11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 비잔틴 제국의 약화

8) 오스만투르크 시대 (AD1453-1920)

오스만투르크: 셀주크투르크시대 세워져 셀주크투르크가 없어지자 독립 선언한 부족국가

오스만(1299-1324): 국가를 건립. 마르마라해의 아나톨리아지역을 석권

오르한: 오스만의 아들. 1326년 부르사를 점령, 비잔틴제국으로 확장

슬레이만: 오르한의 아들. 1354년 비잔틴제국의 유럽쪽 영토에 진출.

앙카라를 점령하나, 사고로 사망

무랏1세: 발칸 반도 에디르네(아드리아폴리스)를 점령. 수도를 에디르네로 옮김.

1396년 십자군을 니볼루 전투에서 물리침

몽골족의 후에 티무르와의 전투에서 패함

메흐멧 2세: 1453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점령

칼리프직을 양도받아 오스만 투르크는 명실상부한 이슬람의 종주국이 된다

카누니 술탄 슬레이만: 오스만투르크의 최전성기

북부 아프리카 전체, 동부 유럽 전체, 중동지역 전체의 영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독일과 오스트리아편으로 패전국으로 전락, 영토의 상실

1919년 패전을 틈타 그리스군이 본토에 침입

케말 파샤(아타튀르크) '아나톨리아·루메리아 권리옹호단'을 조직

1920년 연합국과 세브르 조약의 체결로 해체

앙카라에서 터키 대(大)국민의회를 소집하고 국민군을 조직

1922년 9월 그리스군 격퇴

11월 술탄제(制)를 폐지

9) 터키공화국 시대(1923-현재)

1923년 10월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공화국 선언, 케말 파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1924년 칼리프제(制)가 폐지, 공화국 헌법이 공포

*근대화 정책: 승원(僧院)·영묘(靈廟) 폐쇄와 승단(僧團) 금지, 일부다처 금지, 터키모(帽)·

베일 금지(1925), 법률의 유럽화, 태양력 채용(1926) 등

1928년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조문이 헌법에서 삭제

1934년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에타티슴': 국가자본주의제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33년 국제연맹 가입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2월 독일·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할 때까지 중립유지

* 터키 - 터키족 90%, 쿠르드족 등
* 이라크 - 아라비아인 79%, 쿠르드, 페르시아, 터키족 등 중세 압바스왕조의 중심지, 몽골족의 침입, 오스만투르크의 지배, 1932년 독립, 1958년 이라크혁명(공화정), 1963년 바스당 집권
* 이란 - 페르시아인 51%, 터키족 24%, 갈락-마잔다르족, 쿠르드족, 아라비아인 등 1502년 사파비왕조, 1925년 팔레비왕조, 1935년 국호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 아라비아인 1927년 건국, 1935년 국호 개칭
* 기타 오스만제국 붕괴후의 독립국가들 시리아, 레바논(이상 프랑스), 요르단(로렌스-영국)

라) 이스탄불

1) 이스탄불(Istanbul) 개요

터키 최대의 도시

면적: 535km², 인구: 약 761만 6000명(1994)

위치: 보스포루스 해협의 남쪽 입구에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음.

역사: 1923년까지 1,600년 동안 수도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사적 분포

산업: 터키 최대의 공업도시. 군수공업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스탄불항은 전국 수입액의 70%, 수출액의 20%를 취급

2) 이스탄불(Istanbul)의 지역구분

보스포루스해협·골든혼(Golden Horn)·마르마라해(海)에 의하여 지역 구분

a) 베올루 : 무역중심지

베올루 남부의 갈라타 지구-중세에 제노바나 베네치아의 무역상사가 있었던 곳(비잔틴 제국시대의 조계), 부두에는 국내외의 배들이 모이고 아시아쪽의 하이달파샤역(驛)으로 떠나는 페리보트도 이곳을 기점으로 삼았다.

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오스만은행을 비롯하여 국립은행·외국은행이 많다.

베올루 동부는 택시광장을 중심으로 일류 호텔·레스토랑·극장·대상점 및 각국의 영사관이 늘어서 있다.

b) 이스탄불(파티프)

골든혼의 남쪽.

옛날의 이스탄불이 자리잡았던 전통 있는 지구

비잔틴시대의 성벽이 서쪽 경계를 둘러싸고 있다.

2대 이슬람 사원 : 아흐메드 사원(블루모스크), 쉴레이만 사원의

예니성당, 하기아 소피아(현재박물관), 톱카피 궁전(현재 박물관) 등의 각종 박물관
이스탄불대학 등

대시장(그랜드 바자르)

c) 위스퀴다르: 보스포루스해협을 사이에 둔 아시아쪽 지역

전형적인 터키 양식의 도시로 많은 이슬람교 사원이 있으나 지금은 신흥주택지로 발전

유럽 쪽과는 페리보트가 왕래한다.

세리미에 병영(兵營)과 나이팅게일 병원이 있으며 남부에는 바그다드 철도의 시발역인 하이다르파샤역이 있음.

3) 이스탄불의 역사

a) 고대 그리스: 비잔티움

b) 비잔틴제국 시대 (330-1453) : 콘스탄티노플

330년 5월 11일 콘스탄티누스대제 고대도시 비잔티움에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 건설
보스포루스 해안가

381년 공의회 개최, 콘스탄티노플 총주교가 신분서열 2인자가 됨

476년 서로마 멸망

6세기초 : 비잔틴 제국의 안정과 성숙기, 유스티아누스 황제

529년 《로마법대전》(라틴어)편찬지시. 후에 그리스어<신법>편찬
성소피아 성당의 재건

565년 롬바르디아인이 이탈리아로 몰려듬.

제국의 축소(이탈리아 최남단 지역 일부, 라벤나와 로마 사이의 불안정한 지역만을 보유)

7세기 : 페르시아와의 전쟁, 아랍과의 전쟁

8세기 말: 로마제국 옛 영토수복. 트라키아, 칼키디케, 그리스중부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되찾음

마케도니아 왕조(867~1057) :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 정치적, 문화적 성과

1453년 5월 29일 화요일 오스만투르크 메메드2세 콘스탄티노플 입성

c) 오스만투르크 시대 : 이스탄불

이스탄불: 터키어 '도시로 Is tin pilin', 콘스탄티노플의 성벽과 지붕을 가리키는 말.

4) 이스탄불의 도시 계획

a) 입지: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가르는 보스포루스해협의 서안 입구

동양과,지중해 사이의 해상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육상로의 교차로

금각만(金角灣)방향으로 가파른경사, 마르마라해 쪽으로 완만한 경사

b) 동로마의 수도 계획

① 콘스탄티누스대제

-옛로마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계획: 14개의 도시지역과 7개의 언덕

마르마라해를 향해 흐르는 작은 리코스강(테베레 강에 해당)

-최초의 육해상성벽: 7.5km²의 면적 둘러쌈

-대경기장 : 330년 5월 11일 수도와 함께 완공

-대수로를 통한 물의 공급

② 테오도시우스2세,

-성의 증축: 5세기초부터의 급속한 인구증가, 면적2배로 증가.

-지진으로 인한 성벽손상: 447년11월7일, 448년1월26일 지진에서 탑394개 중 57개와

벽이 손상, 60일만에 보수

-성벽의 길이: 마르마라해안 8km, 금각만 7km, 육지 6.5km

*히포드럼(마차경기장 HIPPODROME) : 본래 196년 로마의 황제 세비루스(Severus)에 의해 지어진 검투 경기장. 4세기 무렵 비잔틴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검투 경기는 금지. 마차 경기장으로 변경. 10만명 정도 수용. 13세기 초 십자군의 침입으로 이 광장에서 비잔틴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짐. 대부분의 광장 내 유적 파괴되었다. 3개의 기념비 존재.

디킬리타스(Dikilitas):이집트 오벨리스크. BC1550년 메소포타미아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헌사한 사원에 세워졌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 당시 왕족들의 일상을 양각으로 나타냄.

오르메 수툰(Orme Sutun): 콘스탄티누스의 기둥

셀팬타인 기둥(Serpentine): 아폴론신전에서 가져온 기둥

* 지하 저수저(Yerebatan Sarayi)

공격을 대비한 충분한 물의 공급, 비잔틴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 건축성 소피아 성당 맞은 편에 위치. 지하궁전(Yerebatan Sarayi).

이스탄불로 부터 20km 떨어진 곳으로 부터 수로를 통해서 공급

336개의 기둥중 거의 모두가 비잔틴 코린트식의 기둥 머리

저수저 전체의 크기 70m X 140m

* 갈라타 타워(GALATA KULESI)

원래 이 타워는 6세기경 '그리스도의 탑'이라는 이름으로 비잔틴 제국에 의해 건축 14세기, 제노아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이 자신의 자치령에 따라 재건

오스만 제국시대이던 1446년에 타워의 상층부가 추가

감옥, 화재감시탑, 해상감시탑 등, 다양하게 이용. 현재 높이 63미터

c) 오스만 투르크의 도시계획

점령 후 성벽의 재건과 사원의 건립, 이스탄불 대학 건립, 궁전 건립

① küliye : 오토만 도시계획의 주요 도구.

아라비아어의 "전체"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

혈연, 직업, 동향 등으로 형성된 마을에서 기능적 중심

② küliye의 구성: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연계된 건물군으로 이루어짐

①마드라사madrasa:무슬림대학 ②설립자의 영묘 ③ 앞에 샘이 있는 모스크
술탄에 의해 신민들의 공동체로서 설치됨
도시의 통치중심과 상업중심와는 구분됨

* 통치중심: 성채citadel

* 상업중심: 시장bazaar, 상인의 숙소khan - 금요일모스크 맞은편에 위치

③ 이탈리아의 영향

- 브루넬리ски적 순수성

ex) 아드리아노플, <바야지드2세 küliye(1484-88)의 정신병원>

브루넬리ски, 플로렌스, <고아원> 두 건물 현관 디자인의 유사성

오토만 궁정에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초청되었음

메메드 II세의 küliye : 거대한 구성과 엄격한 좌우대칭

* 톱카프 궁전(TOPKAPI PALACE)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메흐멧이 이스탄불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 건설.
4세기 동안 꾸준히 규모를 확장, 15세기-19세기 초까지의 오스만 건축양식의 변화축적
술탄 군왕들이 거처했던 곳. 술탄과 그 가족 외에도 5만명이 넘는 시종들과 군사, 관료
들이 거주

* 모하멧 모스크(FATIH CAMII): 오스만투르크의 메호멧2세의 이스탄불을 점령 기념
(15c.) 지진으로 붕괴된 후 18세기에 재건된 병원, 목욕탕, 도서관 등의 많은 시설

* 블루 모스크 (술탄아흐멧 모스크 SULTAN AHMET MOSQUE)

직경이 27.5m, 높이가 43m, 규모면에서 터키 최대
맞은편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교사원
그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의 타일로 장식
돔의 약 200개 조그만 창을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

* 술탄이만 모스크(Suleymaniye Mosque, 1550~1557년, Sinan)

금각만 서쪽 해안에 구릉의 정상
모스크의 중앙 정원 네 구석에 세워진 4개의 첨탑, 10개의 테라스
내부의 미흐랍와 설교단은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대리석
술탄이만과 그의 처 훗레무 술탄(러시아명 로쿠세레나)의 묘, 시난의 묘 또한
4개의 마드라사(이슬람 신학교), 1개의 외곽교, 캐러밴 사라이(대상들의 숙박지), 터키
욕탕, 저소득층을 위한 주방과 호스피스 시설들이 있음

* 그랜드 바자르 : 1455-1461에 걸쳐 도시의 경제생활을 부강하게 만들 목적으로 두
개의 주 아케이드가 만들어짐. 화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었다가 복구

* 돌마바흐체 궁전 (DOLMABAHCE PALACE)

가득찬 정원이란 뜻. 해변을 흠으로 메꾸고 세운 곳. 1856년 완공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서구화를 추진하
고 국력 쇠신을 도모하던 압두메짓 1세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해 초호화판
으로 왕궁을 건립
막대한 건축비 지출은 어려웠던 왕실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초래

※ 참고자료

비잔틴 건축

; 절충적, 범세계적 성격의 예술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고대 헬레니즘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전통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과, 신흥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변의 이슬람 문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1) 형태적 특징

바실리카의 장축적 개념에 중앙 집중적 개념이 더해졌다.

동방 교회에서 강조하는 위계적인 우주관과 동양의 무덤 양식의 영향

2) 구조적 특징

모르타르를 이용한 벽돌 조적구조 발달

펜던티브 돔 : 4각형 평면위에 원형 평면의 돔을 올리는 독특한 양식

전체 평면은 전후좌우 대칭적인 정방형 혹은 정십자형이며, 가운데에 돔이 들어간다.

3) 재료적 특징

소수의 커다란 피어(pier)를 사용

재료로는 벽돌과 석재를 이용

벽체가 얇아짐

구조(Pier, Pier Buttress, Dome)을 그대로 노출

외부에 비해서 내부의 강한 장식적 경향

주두위에 아치를 지탱하는 부주두가 놓임

4) 대표적 건축물

① 성 소피아 교회(콘스탄티노플, 유스티니아누스, 527-532/ 화재 후 재건, 537완공)

건축가 - 안테미우스(탈레스의 수학자), 이시도루스(밀레투스의 기술자)

콘스탄티노플의 스카이라인 지배 - 건물이 서있는 언덕의 곡선을 반영

구성

아트리움 ; 전면 위치, 방문객과 비종교인이 함께 모이는 장소, 세속과 신성의 전이 공간

6c에 시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 초기 상태를 기념하는 것으로 남게 됨.

현재는 흔적만 남음

나르텍스 ; 2층의 구성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신자(콘스탄티누스시대),

예배행렬이 시작되는 집합장소, 전이구역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주공간; 집중식과 장방형의 결합

집중식-통일되고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 장방형-종교의식의 행진에 유용한 형태

문에서부터 반대편 끝의 제대까지 이르는 예배 행렬을 위한 축 형성

돔의 아래 공간; 공간의 중심

아일; 중심축에 평행하게 주공간 양측면에 넓게 위치. 기둥들로 이루어진 스크린으로 분리.

예배시 남자의 공간

갤러리 ; 나르텍스의 2층에 위치. 여자들의 공간

건물은 거의 정사각형, 하나의 공간 외피로 둘러싸이는 공간을 이룸

돔의 형성 ;

중심의 거대한 돔은 출입구와 앵스의 반원형 돔과 연결

반원형의 돔들은 더 낮게 있는 세 개의 작은 반원형 돔으로 에워싸임.

돔 하부를 둘러 빛이 들어오는 창들(40개) ; 피어로 지지되고 있음에도 하늘에 매달려 있는 듯 보임. 비 물질화 (chain of light)

재료와 장식 ;

콘크리트를 마감재로 사용 ; 1/4-1/2인치 두께의 석재만으로도 그리스의 덩어리 대리석 시공보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

대리석, 반암판으로 된 피복으로 풍부한 벽체- 회색, 크림색, 적색 ; 수를 놓은 듯 11, 12c 금색 모자이크 장식 -> 빛과 함께 극적인 효과

주두에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여왕의 이름 첫 글자를 딴 장식

의의 ;

기념비적 건축, 장엄하고 거대한 규모와 극적 공간

;이후 여러 규모의 교회들이 성소피아교회의 중앙의 돔과 보조 공간의 복합적인 공간 개념을 사용하여 지어짐, 많은 건축에 받아들여지고 복제됨

예)성 사도 교회(콘스탄티노플, 6c), Archangel Micheal 교회(소련아칸젤, 17c)등

15세기 회교사원으로 바뀌면서 개축

② 성 세르기우스와 바크스 교회 (콘스탄티노플, 527, 유스티니아누스)

새로운 아이디어 시도

중심의 돔이 가장 높게 강조, 둘레에는 낮은 아일(앰블러토리)+갤러리, 나르텍스

내부의 볼륨과 외부 지붕 shell의 불일치-이유 불확실

복잡한 내부공간

피어로 지지, 피어사이의 기둥들은 장방형과 곡선으로 된 감실 niches 형태를 조성

기둥들은 스크린의 역할, 기둥 넘어로 파동하는 듯한 공간

건축가는 성소피아의 건축가와 동일한 것으로 추측

이슬람 건축

1) 이슬람 건축의 일반적 특징

다양한 지역에서 넓은 시간에 걸쳐 계속되면서 다양한 지역 특색을 만들었다. 즉 독창적인 건축전통보다는 정복지방의 건축양식을 수용하였다.

주로 비잔틴,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다.

담 혹은 건물로 둘러 쌓여있는 폐쇄적 공간

형태와 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 (외부에 의한 건물의 파악이 힘들다.)

중심성의 결여

아치 및 아케이드 구법의 발달

돔 구법의 발달

2) 모스크의 구성 요소

① 미나렛 minaret (첨탑)

마호메트가 살던 시절에는 특별한 미나렛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원 근처의 가장 높은 건물 지붕에 올라가 기도시간을 알렸으며, 초기에는 그리스 시대의 망루와 그리스도교 교회의 탑을 이용하였다.

미나렛의 두 가지 기능

- 하루 다섯 차례 있는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함
- 모스크의 위치를 쉽게 알리기 위함.

미나렛의 지역적 차이

-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시리아, 북아프리카, 스페인등의 지역)은 사각형
- 이라크 지역은 나선형 (고대 메소포타미아 건축 양식을 모방)
- 이란 및 터키 지방은 원통형
- 원래는 미나렛이 1~2개가 보통이었지만 오스만제국 시대로 오면서 미나렛의 수가 권력을 상징하게 되고, 이스탄불의 모스크는 6개의 미나렛이 있다.

② 돔 dome

초기의 돔은 qibla를 규정하고, 채광을 위한 것. 종교적 중요성은 없었음.

이후 묘의 천정으로 돔이 사용되면서 중요해짐

돔 구조는 기둥이 필요없기 때문에 대공간이 확보된다.

qibla 주변의 성역을 모두 돔으로 덮으면서 돔이 거대해짐

천국의 상징

③ 분수 ablution fountain

중정의 중앙에 위치

기도를 하기 전에 씻어야하는 이슬람교의 계율상 꼭 필요한 시설

4) 모스크의 주요 내부시설

키브라(Qibla) : 모스크의 주축을 기도방향인 메카로 향하도록 하는 방향축

c.f) Ka'ba

성스러운 정방형의 돌. 무하마드 시대 이후 여러번 다시 만들어졌다.

정신적 수직축과 현상학적 존재의 수평면과의 교차점을 나타내는 최초의 상징물 순례자들은 이 돌을 7바퀴 돌아야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성인의 무덤 등에서도 행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유체 baraka에 자신을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한 의례이다.

미흐랍(Mihrāb)

qibla wall 가운데의 문 모양

교회건축의 apse에 해당, 메카로 향한 기도하는 방

아치형의 mihrāb은 소리 증폭의 효과. 대규모 집회에 유리

후에 mihrāb은 모든 모스크와 이슬람 문양의 주요 모티프

민바르(Minbar) : 미흐랍 바로 오른쪽의 계단 형식의 설교대

모스크 양 측면이나 뒷면 혹은 2층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존재

인물이나 동물상, 모자이크나 프레스코 벽화가 없다. (우상숭배 금지) 대신에 서예와 조형미술이 발달하였다.

이완 iwān(출입구현관)

5) 이슬람 건축 형식

① 일반 모스크Mosque

‘꽃어 옆드려 경배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Masjid가 영어로 변형

이슬람 신자들이 예배하는 장소의 총칭

Mecca메카의 중심인 Ka'ba를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모스크들은 방사형으로 배치

② 마드라사Madrasa (사원 +학교, 신학교)

초기 모스크에서 기도와 교육의 두 기능이 결합한 형태

수도원에서 영향을 받은 마드라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제공

전형적인 마드라사는 두 층으로 구분된 숙박 및 편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마드라사에 돔을 씌우고 주변에 미나렛을 설치하여 마드라사를 강조했다.

(1135년 Zavare의 모스크 건설 후에는 마드라사의 돔이 의무시된다.)

③ 수도원 모스크The monastic mosque, or khanaqah

④ 묘 건축Tomb mosque

매장시 그 시신의 더러움과 피는 영광의 증거이므로 죽은 당시의 옷을 그대로 입혀서묻는다.

이슬람에서 순교는 죄의 자동적 소멸을 의미함

무덤은 단순히 죽은 사람의 거주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인들과 죄인들이 만나는 영혼의 공간

⑤ 궁궐 건축